

海

外

話

題

○세계적인 토마토 가공처리기업인 미국의 캠프벨, 수우프사와 헤인즈 USA사는 이른바 '슈퍼토마토'를 생산하기 위한 강력한 새로운 遺傳工學기술을 응용하는 불꽃 튀는 경쟁에 들어 갔다. 구랍 14일 헤인즈사는 캘리포니아주 더블린의 植物細胞研究所와 5개년 계획을 맺었다. 이보다 앞서 캠프벨사는 1981년 7월 이 회사의 2명의 전종업원이 캠프벨 본사가 있는 뉴저지주 캠펬근처에 차린 DNA 植物技術社의 40퍼센트의 이권을 사기위해 1천만달러를 투자했었다.

이 두회사가 겨냥하고 있는 것은 토마토 경작자들과 통조림제조업자들이 다같이 득을 볼 수 있는 토마토의 질에 두고 있다.

· 토마토는 95퍼센트가 수분이기 때문에 그 고체분을 늘리는데 우선 목표를 두고 있다. 케첩과 수우프를 만드는데 물이 많으면 그만큼 비용도 많이 먹힌다. 토마토나무에 물을 대거나 익은 토마토를 운반하는 일은 물론 수분이 많은 과실을 들에서 공장으로 옮긴뒤 거의 모든 액체는 빼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단한 고체분을 1퍼센트만 늘려도 고체의 수저율은 20퍼센트가 증가된다.

헤인즈사는 올 봄 植物細胞研

究所의 식물유전학자인 존F·포베스가 페루의 안데스山脈지방으

스는 그곳에서 큰 딸기보다 별로 크지 않은 과실을 만드는 野生토마토나무를 찾아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토마토는 언제나 파랗고 때로는 독성까지 갖고 있어 실제로 먹을 수가 없으나 고체부가 13퍼센트나 많은 한가지 이점을 갖고 있다.

포베스와 그의 동료들은 운전공학기술을 이용해서 이 식물의 유전자를 상용토마토품종에 결합시킬 계획이다. 이리하여 고체분이 10퍼센트나 되는 슈퍼 토마토를 만들어 내기를 바라고 있다. 이들은 안데스産 토마토가 3,600미터 높이의 흑한에서 자라날 수 있게 만든 유전자를 이용하고 또 가뭄과 질병에 이겨내고 소금기가 있는 관개수에도 자랄 수 있는 유전자도 찾아 낼 계획이다.

한편 캠프벨사 과학자들은 헤인즈사가 이미 경쟁에서 敗者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DNA 植物技術社의 창설자의 한사람인 윌리엄 R. 샤아프는 『우리가 4~5년은 앞섰다』고 주장하면서 고체분이 15퍼센트나 높은 슈퍼토마토의 현장실험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캠프벨사는 또 토마토에 독특한 맛을 넣어 신선미가 더 풍기는 것을 생산할 계획이다.

〈비즈니스·위크〉

수퍼토마토
육종경쟁

로 野生토마토를 찾아 나섬으로써 이 사업의 막을 올린다. 포베

新製品

라스·베이거스

電子쇼

○ 지난 달 美國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을철 전자쇼에는 7만여명의 제조업자, 소매상, 판매원들이 모여들어 비디오와 스테레오 장비, 홈·컴퓨터, 로봇, 전자게임등의 신제품에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 쇼에서 우선 관심을 끈 것은 90센티미터 키의 알루미늄제의 로봇트 '앤드로보트'들의 춤추는 모습이었다.

비디오·게임을 발명했던 놀랜 부쉬넬은 이 로봇트가 1995년까지 자동차를 제치고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쉬넬의 이 로봇트는 마루바닥의 진공소재를 할 수 있고 이야기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며 파티에서 음료수를 나눌 수 있게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그러나 창문은 담을 수 없다.

이 쇼에는 처음으로 미국의 2대거인기업이 참가했다. AT&T 산하의 어메리칸·벨트는 10여종의 전화를 전시했는데 그중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2가지의 새로운 전화를 선보였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IBM이 새로운 퍼스널·컴퓨터를 이 쇼에서 선보일 것이라는 풍문이 나왔으나 이 회사는 다만 최근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현재의 모델의 소프트웨어만을 전시했다.

한편 값이 덜한 홈·컴퓨터의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텍세스·인스트루먼트, 팬소닉·타이맥스 등은 4백달러 이하의 새로운 기계를 내놓았다. 타이맥스는 최저가로 99.95달러의 홈·컴퓨터를 50만대이상 팔았었다. 199달러의 새로운 타이맥스/신클래어 2,000형 컴퓨터는 가장 홈·컴퓨터시장에서 살 수 있는 현재 싼 1포인트(0.47리터)크기의 99달러짜리 프린터와 함께 구입할 수 있다.

비디오·뮤직·인터내셔널은 구식의 자동전축기와 사진을 묶어서 비디오·뮤직 자동전축기를 내놓았다. 이것은 비디오·카세트를 틀어 전축기에 달린 25인치 스크린에서 가수나 또는 밴드가 연주하게 되어 있다.

오디오필리스는 새로운 레이저기술로 개발한 디지털-오디오-디스크 시스템을 선보였는데 이것은 스트레오 음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여러 기업에서도 디스크·시스템을 출품했는데 2~3개월내에 첫번째 디스크·플레이어가 미국시장에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종래의 레코드와는 달리 이 플레이어는 은색

의 직경 4분의 3인치가 되는 종이 두께만한 얇은 디스크를 사용한다. 기록과정에서는 음악을 2진법의 수(0과 1의 연속)의 디지털부호로 고친 다음 디스크표면에 수10억개의 작은 구멍을 만들어 기록한다. 이 음악은 광으로 재생되는데 이때 레이저광은 디지털부호를 읽으면서 디스크의 표면에 소음을 일으킬 것 없이 음악을 연주시킨다. 바늘이 디스크의 표면과 접촉하는 일이 없어 닳지 않는다. CBS레코드와 폴리그램등 두회사만이 디스크 생산업자에게 캐털로우를 공개하는데 합의했다.

TV분야에서 어메리칸·오디오는 처음으로 자동차 계기판에 넣을 수 있는 소형 TV를 선보였다. 이 메이커는 우표크기(2인치斜線)의 이 흑백 스크린은 자동차의 안전운전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당 1,495달러의 이 시스템은 자동차의 점화장치가 틀어놓은 위치에 있어도 TV스크린이 점화되지 않도록 배선을 해두었다.

가정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새로운 비디오-카세트 레코더(VCR)·시스템인 베타·하이파이도선을 보였다. 지난 날의 VCR의 오디오의 질은 TV세트내의 소형 스피커 박스만큼의 수준이었다. 그러나 소니와 그밖의 여러 메이커들이 개발한 베타·하이파이는 오디오의 질이 크게 향상되는 미리 짜넣은 스트레오·사운드·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첫번째의 베타·하이파이모델은 1983년내에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VCR에 이 베타·하이파이를 부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이런 음을 듣자면 결국 새 시스템을 살 수 밖에 없다. <뉴즈위크>